

시들지 않는 정의, 끝나지 않은 기록



강지혜 · 박효령 · 권신영 · 전세라 기자



기자는 늘 속도를 요구받는다. 누구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하고, 먼저 쓰고, 먼저 전송하는 일이 미덕처럼 여겨진다. 그런 환경 속에서 반세기 전 해직 언론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취재는 시대를 거슬러 걷는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각각 동아투위와 조선투위로 불리는 이들은 50년 전 박정희 정권 시절 언론 자유를 외치다 정부와 사측의 압력 속에 해직된 언론인들의 모임이다. 1970년대, 권력에 맞서다 강제 해직된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은 유신 독재의 탄압 속에서도 언론 자유를 향한 외침과 진실의 기록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다. 자유언론실천선언 이후 그들에게 돌아온 건 해직과 감시, 생계의 위기였다. 펜은 꺾였지만 자유를 향한 신념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동아투위와 조선투위의 투쟁은 한국 언론사에 ‘자유’를 새긴 상징적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역사가 기록되는 동안 정작 그 주역들의 삶은 오랫동안 조명받지 못했다. 그들은 그렇게 ‘흑백의 시간’ 속에 남겨졌다. 투데이신문은 기획 ‘시들지 않는 정의’를 통해 동아투위와 조선투위의 과거를 단순히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의 언론과 시민사회가 지고 있는 ‘자유’의 부채’를 다시 묻고자 했다. 이미 끝난 역사처럼 보이는 사건을 다시 꺼내야 하는 이유를 그렇게 찾고, 또 물었다.

이번 기획은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외치던 이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 어떻게 삶을 훼손당했는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소외의 양상을 다시 들여다보는 작업이었다. 동시에 해직 이후 이어진 생계 문제와 내적 상흔을 통해 당시 언론 통제가 개인과 사회에 남긴 누적된 피해를 드러내고,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간접적 통제 구조를 현재의 문제로 다시 환기하고자 했다.

사건의 흐름과 역사적 의미를 다룬 기록들은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개인의 감정과 삶은 상대적으로 접하기 어려웠다. 억압과 좌절, 분노와 상실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피부로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필요한 건 기록을 넘어 사람의 목소리였다. 한 개인의 삶과 감정, 그 서사를 직접 마주하는 일이 필요했다.

그렇게 여든이 넘는 원로 언론인들을 만나 그날의 시간을 다시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었고, 다시는 그날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며 인터뷰를 거절한 이들도 있었다. 오랜 세월 속에서 기억이 흐릿해진 경우도 있었다. 그 시간의 무게를 다시 꺼내는 일은 취재원에게도, 이를 기록하는 기자에게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서울 중구 충무로의 동아투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던 순간의 긴장감은 지금도 선명하다. 기자에게 그들은 '선배의 선배'쯤 되는 거대한 존재였다. 그들을 똑바로 마주하는 일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위원들의 환대 앞에서 자꾸만 몸이 굽어지는 것을 애써 추스른 기억이 여러 번이다. 50겹 송판을 한 번에 깨야 하는 상황에 놓인 태권도 흰 띠의 기분. 이런 것일까 싶었다.



서대호 작가팀이 동아투위 김동현 부위원장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촬영은 해직 언론인들의 기억을 현재로 소환해 자유를 지켜낸 이들의 시간을 조명하고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미뤄온 책임과 용서의 의미를 되묻는다. 투데이신문



동아투위 이부영 위원장이 투데이신문 권신영, 박효령 기자와의 인터뷰 중 자신의 기록을 찾아보고 있다. '시들지 않는 정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획 촬영에서 이 위원장은 50여 년 전으로 돌아가 그날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이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투데이신문



서대호 작가(왼쪽)의 스튜디오에서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 동아투위 양한수 위원, 김동현 부위원장이 촬영을 마친 뒤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시들지 않는 정의' 기획은 해직 언론인들의 기억을 현재로 불러내고, 언론 자유를 지켜낸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미뤄온 사과와 책임의 의미를 다시 묻고자 했다. 투데이신문

2026 기자의 세상보기



2025년 12월17일 서울 중구 동아투위 사무실에서 자유언론을 위해 싸워온 동아투위·조선투위 위원들이 꽃을 나눠 들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조선투위 이기중, 신흥범·성한표, 동아투위 임부섭, 윤석봉 위원, 김동현 부위원장, 이명순, 양한수, 이종대, 김학천, 허욱, 정연주, 이영록, 박지동 위원, 이부영 위원장.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해직과 탄압을 견뎌낸 이들이 손에 든 분홍 카네이션에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이 담겨 있다. 투데이신문

그렇게 수개월이 넘는 취재 끝에 총 15편의 기사가 완성됐다. 11명의 취재원을 만나 자유언론 투쟁기와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함께 기록했다. 해직 언론인들을 직접 만나 증언을 채록했고,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후배 기자들의 시선까지 확장해 이들의 투쟁과 상처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어떻게 세대와 관계 속으로 이어졌는지 조명했다.

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인물사진 전문 작가 서대호 씨와 함께 작업을 진행했다. 우리는 국가 권력의 통제와 억압이 남긴 흔적이 이들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 살아남은 얼굴에는 어떤 표정이 남아 있는지에 집중했다. 인물 곁에는 생화를 함께 배치했고, 꽃말을 활용한 상징적 연출을 통해 민주주의와 존중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담아내고자 했다. 사진 속 깊게 패인 주름과 한 송이 꽃은 혹독한 시대를 지나온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이자 존중의 현화였다.

투쟁 당시의 감정과 시간을 한 장의 사진 안에 담아내고, 그 위에 기자의 운문을 더해 서사를 구성했다. 각 인물마다 짧은 운문과 사진 중심 기사 한 편, 심층 인터뷰 기사 한 편을 구성해 정서적 이해와 정보 전달을 함께 시도했다. 운문이 실린

[시들지 않는 정의] 자유언론 투쟁, 평범한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비범한 결단

▲ 장지혜 기자 | ● 승인 2026.01.17 17:29

백발의 두사들이 지켜낸 자유의 토대
반세기 투쟁, 언론의 존재 이유 풀어
언론 길들이기, 수법만 바뀌었을 뿐
정의롭게 살아도 된다 풍겨 남겨야

1970년대 원안의 기자들이 있었다. 권력에 맞서다 강제 해직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 소속 기자·PD 아니었나. 그들은 유신 독재의 탄압 속에서도 언론 자유를 향한 외침과 신념의 기록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대가는 가혹했다. 자유언론실천선언 이후 권력에 맞선 그들에게 돌아온 건 강제 해직의 판결이었다. 땀은 흘려 줬지만 그들의 자유에 대한 의지와 신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동아투위와 조선투위의 투쟁은 한국 언론사에 '자유'를 새긴 상징적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승리의 역사가 기록되는 동안, 정작 그 주역들의 삶은 잊히고 외면받았다. 그들은 그렇게, '흑백의 시간' 속에 남겨졌다. 두데이신문은 기획연재 [시들지 않는 정의]를 통해 동아투위, 조선투위의 속거를 되짚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의 언론과 시민사회가 지고 있는 '자유'의 부채(負債)를 묻고 시연된 정의 앞에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

이번 기획은 언론의 심판까지 초월해내는 한국 사산계의 거장 시대호 작가와 알겠다. 그의 사진 속에 담긴 주류선 열정과 한 송이의 꽃은 아난의 시대를 견뎌낸 그들에게 건네는 위로이자 합의의 '현상'이다. 두데이신문이 만난 '노병'들의 여섯히 날 선 눈빛은 시들지 않는 정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물고 있다.



두데이신문이 시대호 작가와 함께 동아투위 조선투위 원로들의 내밀한 표정을 담아낸 흑백 포트레이트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동아투위 이무용 위원장, 동아투위 김용현 부위원장, 동아투위 정현주 위원, 조선투위 신동원 위원, 동아투위 임학현 위원, 동아투위 이병기 위원. (이대호 작가)

【두데이신문은 강지혜 권선경 기자】 안개만 뚫어줄 원했던 절망을 다 버치고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노병들을 다시 마주했다. 두데이신문은 기획연재 [시들지 않는 정의]를 통해 지난 14일에 걸쳐 동아투위와 원로들의 모습과 내면을 기록하고 가족의 증언을 통해 50여 년의 시간을 되짚어냈다. 그들이 외친 '자유언론'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후배 언론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언론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되물어 놓았다.

비록 그들은 곧내 편입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겨레 뉴스타와 등 독립언론의 탄생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언론장악 시도, 공영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둘러싼 파문의 현상이다. '자유언론실천선언'은 계속 소원했다. 민주주의의 위기 국면마다 다시 원기된 이유는 분명하다. 권력과 자본이 언론을 갈취하려는 욕망이 형태만 바꾼 채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시들지 않는 정의'
(기사캡처)

기사에는 자유언론 투쟁을 주제로 한 AI 음원 기반 낭독 영상도 삽입해 독자들에게 보다 확장된 시청각적 경험을 전달하고자 했다.

촬영장에서 만난 선배 언론인들은 반세기 전의 일을 마치 어제의 기억처럼 또

렷하게 전해줬다. 해직 이후 이어진 삶과 시간을 담담히 이야기하면서도, 후배 기자들에게는 언론 자유와 기록의 책임에 대해 조용한 당부를 건넸다. 그들의 말은 거창한 구호라기보다 오랜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무게 있는 증언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 이번 기획은 동아투위와 조선투위의 투쟁사를 단순한 ‘영웅 서사’로만 소비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노년기에 접어든 해직 언론인들의 삶을 따라가며 국가 폭력적 통제가 남긴 상흔과 회복되지 않은 권리, 그리고 그 상처가 삶 전체에 남긴 흔적을 입체적으로 기록하고자 했다.

과거의 비애를 들여다보고 억압의 시간을 온몸으로 지나온 이들의 깊은 주름을 바라보며 같은 시간을 경험할 기회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해직 언론인들의 삶과 기록을 배우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꽃을 건넬 수 있었다는 사실은 기자로서 오래 남을 기억이 됐다.

동아투위 사무실과 스튜디오에서 위원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늘 빈손이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언제나 양손이 무겁게 채워져 있었다. 자유언론실천투쟁사가 담긴 양장본, 해직 언론인들의 회고록, 안중필 평전은 물론 여행기와 인문기행, 직접 집필한 종교서까지 책장 한편에 차곡 차곡 쌓여갔다. 대부분 감사하게도 친필 서명이 담긴 책들이었다.

해직 언론인 20명의 회고록 제목인 ‘우리는 아직 거리에’처럼, 동아투위 위원들은 지금도 스스로를 ‘길 위의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들의 여행기와 인문기행 속에서도 ‘걷다’, ‘길’, ‘거

리’ 같은 표현은 반복해서 등장한다.

이처럼 동아투위 위원들은 이름과 펜촉을 빼앗긴 뒤에도 끝내 글 쓰는 운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길 위에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기자란 본래 길 위에서 길 위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길을 걸어가는 굳세고 정의로운 방식이야말로 자유언론실천선의 의미를 오늘까지 이어오게 만든 힘일 것이다.

글과 이야기를 사랑하는 기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막연히 상상하며 두려워하던 기자는 이제 없다. 두 다리와 앞을 바라보는 의지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 가장 가깝고도 먼 선배들로부터 얻은, 가장 최근의 교훈이다.

투데이신문 기획 ‘시들지 않는 정의’는 동아투위와 조선투위 해직 언론인들의 삶과 상흔을 다시 기록한 작업이다. 단순한 과거 복원이 아닌, 언론 자유와 국가 권력의 통제가 오늘날에도 남긴 의미를 되묻고자 했다. 취재 과정에서 기자는 반세기를 견뎌온 선배 언론인들의 삶과 기록을 통해 자유언론의 의미와 ‘길 위의 기자’라는 저널리즘의 본질을 다시 배우게 됐다. 📖

투데이신문 강지혜·박효령·권신영·전세라 기자